Dubai유, 다시 50달러대로 복귀

11월25일 50.62달러로 0.67달러 하락 … Brent도 52.77달러 형성

11월25일 국제유가는 미국의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로 NYMEX 시장이 휴장한 가운데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중간유분 재고증가 발표 여파가 이어지면서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Dubai 현물유가는 전일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석유 재고증가 소식이 이어지면서 전일대비 배럴당 0.67달러 하락한 50.62달러를 형성했다.

영국석유거래소(IPE)의 Brent 선물유가도 전일대비 0.29달러 하락한 55.01달러에 거래가 종료됐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서부텍사스 중질유) 선물유가는 추수감사절(11월24-25일) 휴장으로 입전되지 않았다.

국제유가 변화 (단위: 달러/bbl)

구 분		11/22	11/23	11/24	11/25
현물	Dubai	51.38	51.56	51.29	50.62
	Brent	53.74	53.35	53.11	52.77
	WTI	58.18	58.54	-	-
	Oman	52.46	52.65	52.40	51.74
	Tapis	57.74	58.20	57.85	57.17
NYMEX 선물(WTI)	1월	58.84	58.71	-	-
	2월	59.41	59.25	-	-
환율(원/달러)		1055.10	1046.00	1047.90	1051.20

+ 적용환율은 전신환 매도 기준 ++ WTI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

Belton Missouri 소재 예상기관인 Weather Derivatives가 미국 북동부의 난방유 수요가 예년보다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것도 국제유가 하락에 일조했다.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트레이더들과 분석가들의 37%는 유가가 현재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34%는 상승, 29%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05/11/28>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